

# 노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 대학 내 노년학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김형수\*\* · 이원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전공 · \*\*\*경원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평생교육의 개념과<br>이론적 이해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Abstract |

## I.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생애주기 상으로 노년기에는 만성질환과 장애 등을 겪게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유병률이다. 또한 노인들은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a). 일상생활수행능력

(ADL)에 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24.9%로 노인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러한 노인 건강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책은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노후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보건교육은 노후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의 신념,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발적으로 건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교육정보에 의한 평소의 꾸준한 자기 건강관리는 노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 논문은 호서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교신저자: 이원재

전화: 031) 750-5372

이-메일: health21@mail.kyungwon.ac.kr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7.3%, 3백3십7만2천명으로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도달했으며, 출산력 저하에 따라 노인 인구비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00). 또한 생활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조만간 우리 사회도 노인인구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오늘날의 많은 노인들은 질병(건강문제)을 비롯하여 빈곤(경제적 불안정), 역할상실(직업역할과 배우자 역할의 상실 등), 외로움·고독, 가족갈등 등으로 노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인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령, 노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한 후 지나간 여가시간을 갖게 된다. 노년기의 여가가 노동과 구분되는 휴식의 의미보다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무위와 고독이 엄습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살아온 경험의 축적만으로는 오늘날의 지식과 생활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어렵기 뿐만 아니라 가치관, 도덕관마저 혼란스러워져서 노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으로서의 노년기 학습활동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되어야 하며 인간을 지적으로 항상 새롭게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은퇴(퇴직)는 생애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의 경제생활, 사회활동, 심리, 건강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퇴직을 한 사람들은 수입의 감소, 사회적 관계의 단절 혹은 감소, 자아정체감의 혼란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퇴직을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되며 특히 사망률도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oyman, 1999).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퇴직 이후의 생활과 건강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인 퇴직을 전후하여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퇴직 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년기의 건강상의 변화와 문제 및 퇴직에 대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퇴직 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당면하는 문제(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에 대한 대응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가령, 퇴직을 예정하고 있거나 퇴직을 한 개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경미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자가치료, 약물에 관한 정보 등의 건강관리 기술을 습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상태는 노인들이 처한 복지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거나 외로움의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균형적인 퇴직 전·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사회복지(보건복지)의 넓은 영역에 포함된다(허정무, 2000). 사회복지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서 소득보장과 고용, 주택, 건강관리, 사회적 서비

스, 교육 등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교육의 개념을 확장시킨 평생교육은 한층 더 사회 복지의 목표에 접근해 있다. 노년기 특히 퇴직 전·후의 평생교육은 현실에 대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극적(생산적)복지 차원에서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소홀했다. 지금까지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본질상 노인문제를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보호의 측면을 강조하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 했으며, 예방보다 치료(사후대책)차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한준상 외, 1999). 그러므로 노인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통하여 노인들 자신의 자립적인 삶의 유지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접촉과 화합도 증가시키며 나아가서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노인교육에 의해 노인 스스로가 현대사회구조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노인들이 느끼기 쉬운 소외현상도 극복되고 노화문제에 따른 신체적 고통도 줄어들어 성공적인 노후생활(successful aging)에 한 발자국 더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교육은 사회복지 측면의 일환으로써 노인의 요구해결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노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퇴직 전·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퇴직 전 평생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 후 노인교육 프로그램도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퇴직 전과 퇴직 후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퇴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

내 노년학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전제로 하여 이를 통한 평생교육의 확충과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퇴직 전·후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에 요구되는 물적, 지적, 인적 자원으로서의 대학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퇴직 전·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될 때, 이미 대학에 축적된 고급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교수진 및 강사진 등의 인적자원과 학교 내 시설과 기자재 등 물적 자원을 통해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 전·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대학 내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건학,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노년학, 사회학, 벤처학의 연구에 현실적인 자료와 모티브를 공급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 우리 나라의 퇴직 전·후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 2) 외국대학에서 노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 전·후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한국사회로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며,
- 3) 궁극적으로 국내·외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분석에 기초하여 국내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헌 그

리고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외국대학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대학 부속기관을 활용한 퇴직 전·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단기합숙 교육프로그램, 퇴직 전·후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평생교육의 개념과 이론적 이해

###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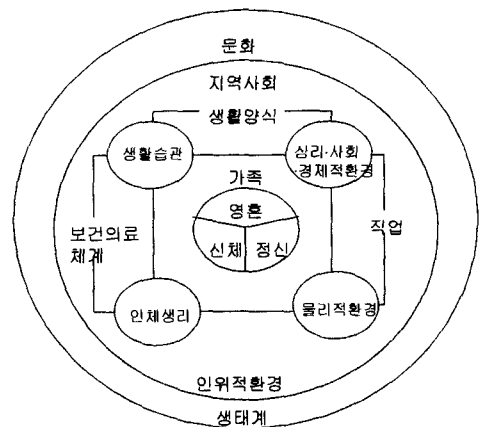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노인들 스스로가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노인들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를 노인들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평생교육은 의존적 존재로서의 노인층을 자활적 생활이 가능한 노인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Atchley는 퇴직을 계속되는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했다. 그의 견해는 퇴직을 인생 주기에서 한 단계로 보고, 또 노동을 인생의 모든 것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단계의 잠정적인 파업으로 보는 것이다(Atchley, 1985).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인교육은 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될 성인들을 위한 노년준비도 포함된다(Peterson, 1983). 한마디로 퇴직준비교육은 인간이 퇴직 전 또는 퇴직 후의 생활에 있어서도 스스로 돕고, 독립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가능성을 남은 인생에서 추구하고 풍부하고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그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 2. 보건과 복지 통합교육의 필요성

은퇴 전·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들 변화의 많은 부분은 건강과 복지문제가 될 것이다. 이 시기의 건강과 복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은퇴 전·후기의 삶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노년기에 이룰수록 신체적으로 기능이 퇴화하여 보건·의료적 접근과 삶의 수준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최적의 건강상태는 개인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건강은 심리·사회·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인체생리, 생활습관 등의 요인과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등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Hancock, 1985). 사회복지는 소득보장, 보건, 주택, 의료서비스에 의 접근, 사회적 연결망의 제공 등을 통해 건강



<그림 1> 이상적 건강의 결정모형

자료원: Hancock, 1985

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한다. 가령 협의의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는 취약계층으로서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장애 등의 보건·의료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건강 및 복지 증진은 국민의 사회적 적응과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두 분야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건강과 사회복지는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안녕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다(Bowling,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대다수의 노인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통합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 3. 이론적 이해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사회적 와해이론(social breakdown theory)에 의하면 고령자들의 고령화양상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각자가 접하게 되는 물질과 사회자원의 확보정도와 아울러 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대한 대응여부에 따라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Passutb & Bengtson, 1988; 유성호 등, 2002). 노인 평생교육은 노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노화와 노인에 관한 부정적 편견에 대처된 긍정적 자아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노인들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사회적 변

화에 대한 대처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후의 새로운 인생의 과정을 설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긴 노년기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식기반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한 사회주류에 남는 것은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의미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고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도움으로써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활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며 동시에 노인들의 자립을 촉진하여 복지서비스를 줄여 복지에 충당되는 지출경비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허정무, 2000).

이처럼 노인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에 기여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후 평생교육활동이 노인복지활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Ⅲ. 연구결과

### 1. 우리 나라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노인 및 노화과정에 관련된 노인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노후생활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퇴직 후 변화된 노인생활의 적응을 위한 교육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자를 퇴직 전 교육이라 한다면 후자는 퇴직 후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퇴직 전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취업시부터 직업인이 자신의 생활설계를 잘 하도록 도와주고 여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며, 퇴직 후 교육은 퇴직 후에 한 개인이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퇴직 전·후 평생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퇴직 전 평생교육

외국의 경우는 퇴직자교육을 위한 전담 부서

를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은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정년에 해당되는 해에 실시, 장기적으로 퇴직준비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일부 기업이나 공무원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 전 교육은 미래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설계를 도와주기보다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차갑부, 1999). 국내의 퇴직교육 현황을 기관별 퇴직교육의 과정, 대상,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퇴직 전 평생교육의 현황

실시기관	과제명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중앙 공무원 교육원		98년 정년퇴직예정 5급 국가공무원 및 그 배우자	① 보람과 긍지 고양 ② 사회적 적응력 함양 ③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	① 사회발전과 공무원의 연금 ② 복지제도안내 ③ 민원상담위원회제도 안내 ④ 사회생활과 건강안내	
서울시 교육청	97년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퇴직예정 초·중등교원	①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 ② 생활의 합리적 설계능력 ③ 연금의 효과적인 관리능력 ④ 건강한 노후 생활방안	① 선배의 경험담 ② 삶의 행복 ③ 건강한 생활 ④ 더불어 사는 삶 ⑤ 전통문화의 향기 ⑥ 연금과 재산관리	
한국전력 공사	생활정보반	정년퇴직예정자	① 생활에 필요한 각종정보 ②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배양	① 재산관리 ② 건강관리 ③ 생활설계 ④ 퇴직자 모범생활사례 ⑤ 퇴직자 모임	강의, 토의 및 시청각 교육 (비합숙교육)
유공	그린플랜	울산공장 현장관리(감독자) 중 정년 3-5년 남은 55-57세의 사원으로 교육 희망자	정년에 대한 불안감 및 노후생활에 대한 두려움해소	① 정년의 의미 ② 안정된 정년을 위하여 ③ 만남의 시간 ④ 사색의 시간 ⑤ 생활속의 법률상담 ⑥ 새로운 출발	① 정년에 대한 토의 ② 선배퇴직자의 모임 ③ VTR ④ 선배퇴직자의 재취업 사례 ⑤ 인생설계표 작성

자료: 김일성, 2002(재인용).

2) 퇴직 후 평생교육

퇴직 후 평생교육은 퇴직 전 평생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하지만 퇴직 후 노인교육은 일부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대부분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표 2>에서처럼 이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취미나 여가활동,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내용, 기초교육이나 교양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노인들이 동일한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음에 불구하고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고령층의 증가의 욕구에 맞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대학부설 평생교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2000년 현재 전국 279개소로 일반대학부설이 136개소, 교육대 부설 10개소, 산업대 부설 15개소, 전문대부설 102개소, 기타(기능대학)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중 노인관련 과정을 개설한 곳은 33개 곳에 지나지 않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노인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프로그램을 보면 명칭과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5가지로 나눈다.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대학 과정, 55세 이상 연령층을 위한 실버넷 운동,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노인교육지도자 전문과정, 노인시설 또는 노인교육 담당자를 위한 노인교육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노인건강관련과정이 있다(정경희 등, 2000).

<표 2> 노인교육의 주요 기관(단체)과 내용

구분	주요 기관 및 단체	교육 내용
노인관련단체	- 대한노인회 - 대한삼락회	직무교육, 일반교양, 노후건강 및 취미 등
종교기관	- 교회, 성당부설 등	각종 생활교육, 행사 등
일반단체 및 시설	- 여성단체 및 여성회관 - YMCA, YWCA - 대한적십자 -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교양교육, 건강관리, 국내외정세, 사회봉사활동, 정년퇴직이후 생활 등
교육, 훈련기관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초, 중등 노인교실 -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교원연수원 등	직업능력 개발, 사회활동 및 교양강의, 현장학습, 자치활동, 퇴직 후 인생설계, 노후생활 등
기타	- 학원, PC통신 등	문맹교육, 정보통신서비스 등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1999.

아직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의 체계적인 노인교육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인교육기관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래에 증가될 고학력 노인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으로서 활용가능성도 매우 높다(정경희 등, 2000). 하지만 설치 목적이 지식과 정보를 노인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데에 있기보다는 노인교육을 담당할 교육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들이 대학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4)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 (1) 욕구반영 부족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사회교육원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퇴직 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노인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수요자의 욕구에 걸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미비점이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b). 그 결과 우리 나라 사람들은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거의 준비가 없고 기껏해야 보험이나 연금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만 있고 사회심리 및 건강 측면에 대한 방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직 후의 시기를 맞이함으로써 정년 퇴직 후의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1997). 따라서 대학내 부설기관 활용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하에

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2) 노인교육기관의 부족 및 낙후성

대부분의 노인학교는 자체시설이 없어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을 주당 및 시간씩 임대 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설 사용시간의 제한 때문에 본연의 교육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좋은 여건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도 꾀할 수 있는 대학기관의 노인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 (3) 노인교육의 전문성 부족

노인학교에서 강의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는 편이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만한 책임자를 구하기 힘들고,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노인학교 중에는 그러한 재원이 없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노인학교에서는 비전문가의 강의 내용으로 수강자들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학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 (4)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의 미비

노인학교와 노인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대개의 경우 기본원칙 또는 특정기준에 준해서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양강의 등에 있어서는 수강자의 학습욕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의 학습프로그램은 노년기의 발달과업과 그에 따른



학습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양 및 전문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고학력 노인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노인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허정무, 2000).

## 2. 외국대학의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 1) 미국 대학의 노인 평생교육

#### (1) 퇴직 전 준비교육

미국에서 퇴직 전 준비교육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퇴직 전 준비교육은 노인을 위한 조직된 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중의 하나로서 퇴직 전 카운슬링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하여 주로 퇴직과 관련하여 고려해할 사항들, 퇴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다루며 이 과정에서 자기진단의 기술을 개발하고 삶의 계획과 대화기술의 개발,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의 개발을 도와주는데 비중을 둔다.

퇴직 전 준비교육프로그램은 사업체나 산업체, 대학과 전문대학, 지역사회서비스 단체, 그리고 각종협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대학의 역할은 매우 크다. 대학에서 퇴직 전 교육은 프로그램의 제한성이 극히 적고 가장 종합적인 특징을 갖는데 시카고대학과 미시간대학에서의 '퇴직 준비교육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성격을 띠고 퇴직을 앞둔 고령자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카운셀링 프로그램과 집단학습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조지아, 오레곤 대학에서의 프로그램들은 상업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모델로서 사용되어졌으며,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퇴직준비과정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역점을 둔다(정경희 등, 2000; 허정무, 2000).

### (2) 퇴직 후 평생교육

#### ① 저학력 노인대상

미국의 대학은 노인에 대한 여가 및 재사회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노인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노인교육은 노인의 욕구 및 흥미에 따른 강의를 중심으로 비학위 과정을 제공한다.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노인은 수업료 공제 및 할인혜택을 받으며 학점 없이 정규 교과목을 청강하는 기회를 갖는다.

미국 노인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엘더호스텔(Elderhostel)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 1개월 동안 대학캠퍼스에서 숙박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network식의 접근이라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1주정도 배우다가 다시 다른 대학 캠퍼스로 옮겨가며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사상은 대학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대학에 갈 수 없거나 가지 않았던 노인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의의를 갖는다. 주로 교양과목과 문화의 제공, 건강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7년 현재 미국에서는 50만명이상이 등록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다(정경희 등, 2000; 허정무, 2000; <http://www.elderhostel.org>).

## ② 고학력 노인 대상

고학력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의 Plato Society가 있다. 이는 노인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관리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며, 프로그램 과정에 교수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타 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중심 또는 흥미중심의 교육의 내용과는 달리 학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도전과 자극, 성장을 원하는 5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삶이 활기차게 하기 위하여, 젊은 시기에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으로서 매년 3학기가 개강되며, 25개의 주제에서 선택할 수 있다. 주제는 과학, 역사, 정치, 미술 등 매우 다양하다. 한 학기는 14주로 구성되며 모든 사람들이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된다(정경희 등, 2000; 허정무, 2000; <http://www.unex.ucla.edu/plato>).

보스턴 대학은 상록(Ever Gree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호기심이 있는 노인들에게 1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청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위해 특별한 강좌를 만들기보다는 현재에 있는 교육과정에 노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형식이다. 젊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대신 나이 지긋한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학들은 새로운 공급원을 얻게 되었고, 많은 대학은 시설이 허용하는 대로 퇴직들에게 학부과정을 공개하고 있다(정경희 등, 2000; 허정무, 2000).

## 2) 프랑스 대학의 노인 평생교육

1968년 입법에 의하면 모든 대학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971년 법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회사는 그들 봉급의 1%를 대학과 산업체, 자원봉사단체에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인교육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노인대학은 1972년 Pirre Vellas의 발언에 의해 최초로 계획되어졌으며, 1973년 Toulouse대학에 의해 시작되었다. Toulouse대학에서의 노인교육은 흔히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라고 불리운다. 생애단계중 세 번째 시기(일로부터 퇴직하는 시기)는 네 번째 시기(다른 것들에 의존하는 시기)의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Third Age가 강조되어진다. Toulouse프로그램의 목적은 퇴직한 사람들에게 건강증진과 육체적 활동 및 정신적 활동을 장려하고 육체적 활동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 노인 스스로 프로그래밍하여 자체 개발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다른 유럽 국가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Toulouse 노인대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증진과 사회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데 있다.

둘째, 관련 과목, 법률, 경제학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토의, 세미나, 정보의 공급을 통하여 개인적 공공서비스와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 수영, 언어, 사회, 문화 등을 주로 다룬다(허정무, 2000).

### 3) 시사점

우리 나라에서 대학에서의 노인교육이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원과는 별도로 대학 내에서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노인교육에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이들 노인교육프로그램은 퇴직 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대학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강좌를 개방하여 노인에게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는 대학의 일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 및 엘더호스텔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의 대학의 노인교육이 한국사회의 대학의 노인교육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노인교육의 전문화, 고급화를 위해 대학의 개방이 요구된다. 셋째, 퇴직 전 교육이 강조된다. 넷째, 퇴직 전 교육과 퇴직 후 교육간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3.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중심기관인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실행이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학은 보다 좋은 시설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노인교육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 내 부설기관을 활용하여 현행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문제점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부속기관인 노년학센터(가칭)의 활용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외국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시사점에 기초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퇴직 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향

퇴직 직후 노인세계로의 편입은 단순히 수입의 감소나 역할의 상실 이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표의 상실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현재의 삶의 만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직 이전부터 노년에 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수정, 자가건강검진, 자가건강관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노후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퇴직 후 신체적·사회적·정서적·경제적으로 불안가능성이 있는 장년층에게 노년기에 맞이하게 될 문제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목적 :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노년기에 맞이하게 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교육방법 : 매주 2시간씩 4주에 걸쳐 진행되며,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이 장년층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반교육 및 위탁교육(기업체)을 실시한다. 일반 자영업자 및 배우자 등에 한해서는 홍보를 통해 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위탁교육의 경우, 대학내 교육과 출장 교육을 병행하며 참여인원이 많은 기업체에 한해서는 교육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4) 주요 교육내용 : 퇴직준비의 필요성, 재정적 계획(노후연금, 저축, 투자, 사회보장, 재산계획, 법적상속 준비), 퇴직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정, 여가시간의 활용, 노후주택의 선택 조건, 건강관리(의료보험)등의 기본적 주제를 다룬다.

(5) 기대효과

- ① 기업의 사내복지 증진
- ②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

2) 퇴직 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향

봄학기(3월~6월)와 가을학기(9월~12월)에 주로 은퇴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주로 낮 시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은 학문적인 경력이나 연령 등의 조건은 필요 없으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은퇴 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운동, 영양교육, 휴식 및 휴양, 음주

및 흡연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노인의 주요질환 치료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년기의 신체적·지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노년생활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과 관련된 교과내용을 개발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퇴직 후 사회적·정서적으로 불안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목적 : 지금까지 축적된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일조 하고자 한다.

(3) 교육방법 :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좌별 토론을 통해 학문적 목표를 추구하며 정기적으로 사회·문화적 활동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강좌별 토론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및 교양 과목을 배울 수 있다.

(4) 주요 교육내용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년기의 신체적·지적·정서적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학 내 기존 학과의 전공들과 연계해 운영해 나갈 수 있다.

- ① 시사(issue)토론(노인의 축적된 지식/경험으로 사회문제 토론-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 ② 노후생활과 영성(퇴직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음-신학과)

- ③ 노인과 여가/스포츠(등산,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의 여가활동-체육학과)
- ④ 노인과 주택(노인들의 신체에 맞는 주거시설 건축-건축학과)
- ⑤ 노년기의 보건의료 및 건강식품(보건학과/간호학과/식품영양학과)
- ⑥ 생활외국어(영어영문학과/중국학과)
- ⑦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컴퓨터공학과)
- ⑧ 노인의 심리(심리학과)

(5) 기대효과

- ① 노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정착화
- ② 노인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고양

3) 단기합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향

여러 가지의 교육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에는 종합학습에 관한 것이다. 그 예로서는 수학여행, 현장견학, 산업시찰, 봉사활동 등이 있다. 방학기간(7월~8월, 1월~2월) 중 대학교 캠퍼스의 기숙사에서 합숙하며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한다. 교육 프로그램 과정의 참가 자격조건은 없으며 지적 호기심과 배움을 평생활동과정의 일환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면 지역 사회 거주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1) 필요성 : 특별한 역할 및 활동이 없어 무료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친교 활동 프로그램 과정을 실시하여 사회적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있다.

(2) 교육목적 : 퇴직후 일정한 역할이 없어 정서

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교육을 전개하여, 노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추구하는 것들을 가정을 떠나 타 지역 문화 답방과 같은 캠핑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및 활동을 함양시키고자 한다.

(3) 교육방법 : 흥미를 위한 배움의 과정으로 강의, 토론, 견학, 사회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매주 3박4일 동안 주제별로 테마 여행을 한다. 강사나 지도자는 대학교수, 대학원생, 사회활동가, 노년지도자,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단, 테마별 정원은 20~30명 정도로 한다.

(4) 교육내용

- ① 문화관광코스 : 온천의 역사와 유래에 대한 강의 및 온천욕, 유적지 및 박물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람 등
- ② 건강증진코스 : 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로부터 노년기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및 자가관리에 관련된 강의와 실습 실시. 시설견학, 노인전문 레포츠 시설, 치매전문병원 방문 등
- ③ 가족화합코스 :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 실시, 가족간의 대화의 시간, 역할극 등

(5) 기대효과

- ①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② 가족관계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③ 노인들에게 정서적·심리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신체적 건강도 유지하도록 한다.

- ④ 공통된 주제를 가진 사람들간에 친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

#### 4) 퇴직 전·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지금까지 퇴직 전후 교육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자가 별개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인교육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과 후의 교육을 연계하여 한 개인의 평생생활을 설계하는 거시적이고 사회화 관련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퇴직 전·후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퇴직 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퇴직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퇴직 전 교육과 퇴직 후 교육의 패키지(package)를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퇴직 전 교육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퇴직 후 교육프로그램이나 혹은 특정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 IV. 결 론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나라 노인 평생교육의 체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학은 분명 타 교육기관에 비해 인적 차원이나 물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

라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외국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시사점에 기초하여 대학 부설기관인 가칭 노년학센터(비학위 과정)를 활용하여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노후 건강 및 복지증진)을 높일 수 있는 퇴직 전·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비학위 과정으로서의 대학 내 노년학센터의 주 교육대상은 장년층 대상교육과 노년층 대상교육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으며, 노년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교의 노년학관련 전공교수와 관련 전공의 대학원생 및 노년학연구 관련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노년학센터는 노인의 현실적 욕구 해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장과 이론의 연계를 통해 노인연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인교육은 비단 예비 노인층(장년층)과 노인층에 국한하지 말고 노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역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보건복지 전문가과정과 노인교육지도자 전문과정 등을 확대 개설하여 노인교육의 인적자원을 점차 확충해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노인 평생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원에 학제간 과정으로 노년학 전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노년학은 어느 한 분야에서 독점할 수 없는 학제적 성격을 가진 학문이다. 따라서 학부과정 보다 대학원 과정에 설치하여 다양한 학문들이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백서. 1999.
- 김일성. 퇴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 윤경아. 노인복지론(2판).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 정경희 변재관 오영희 이윤경. 노인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차갑부. 퇴직 전·후 교육프로그램 연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999;37(1):347-368.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보건복지부, 1999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b.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간 노인성질환 치료의 비교방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2000.
- 한준상 외. 21세기 한국노인교육의 장기정책발전 연구. 연세대학교, 1999.
- 허정무. 노인교육론. 협신사, 2000.
- Atchley, R.C.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fe, 4th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1985.
- Bowling, A. Measuring Health: A Review of Quality of Life Measurement Scales, 2nd ed. Open University Press. 1997.
- Hancock, T. The Mandala of Health: a Model of the Human Ecosystem.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985; 8.
- Hooyman, N. & Kiyak, H. A.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MA: Allyn & Bacon. 1999.
- Passutb, P.M., Bengtson, V.L. Sociological Theories of Aging. In Birren & Bengtson(Ed.), Emergent Theories of Ag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8.
- Peterson, D.A.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rner, San Francisco: Jorsey-Bass Company. 1983.
- <http://www.elderhostel.org>.
- <http://www.unex.ucla.edu/plato>.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in Later Life: Centering arou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ging Center in University

Hyoung-Soo Kim\* · Won-Jae Lee\*\*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ersity*

\*\* *Department of Health Care Management & Information, Kyungwon University*

In aging Korean society, many elderly people have difficulty in the areas of health, economic insecurity, role-loss(both work & spouse), loneliness, and family conflicts. Above all, retirement from wor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essful life events having influences an elderly's persons economic & social activities, mental state, health status, and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could help the aged cope with these situations in later life.

Health and social welfare are common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of life. They also have an effect on each other. Most people agree that the promotion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is to take a short-cut toward achieving human well-being. Thus we need to develop a substantially integrated program of lifelong education, before and after retirement, for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Universities have the advantage of practicing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because they have more material, intellectual, and human resources than any other education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 for promoting both health conditions an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by utilizing an aging center affiliated with a university. Specifically, the developmental courses of pre-retirement, learning in retirement, elder-hostels, and the connection between pre and post-retirement educational programs are proposed in this study.

**Key words:**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Later Lif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s